

## 한라산 山水遊記의 산수문학적 연구\*

손 오 규\*\*

### 목 차

- |                 |                 |
|-----------------|-----------------|
| I. 서론           | IV. 山水敍景과 한라산境界 |
| II. 文獻情報와 樣式的特性 | V. 결론           |
| III. 名所舊蹟과 景物意象 |                 |

### 論文 抄錄

山水文學은 자연을 소재로 삼아, 산수애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山水美를 형상화한 詩歌와 文學작품이다. 그리고 江湖歌道類와 성리학적 이념을 자연미로 형상화한 작품도 포함한다. 하위 장르로 山水詩, 山水小品, 山水遊記가 있다.

첫째, 林悌(1549-1597)의 「南溟小乘」(1578)은 제주를 유람한 최초의 개인유람기이다. 金尙憲(1570-1652)의 「南槎錄」은 1602년 8월 10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6개월), 어사로 제주에서 수행한 임무와 見聞을 기록한 것으로, 관리의 한라산 유람기로서 대표적이다.

둘째, 金徽의 『遊漢拏山記』(1609)는 李元鎮의 『耽羅志』와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도 실렸다. 김치는 1609년 4월 8일 한라산을 유람했다. 趙觀彬(1691-1757)의 『유한라산기』는 「遊南溟記」 「見老人星記」와 함께 제주 유배 時에 지었다. 李源祚(1782-1871)의 「유한라산기」는 『탐라록』 위에 실려 있는데, 1841년 秋分 다음날 한라산 등정을 출발하였다. 최익현(1833-1906)의 「유한라산기」는 형식적 구성면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교수

■ 논문투고일: 2015.11.28 / 심사개시일: 2015.12.5 / 게재확정일: 2015.12.26

에서, 조선조 유학자의 전형적 산수유기라 하겠다. 이들의 산수유기는 장르의식이 명확하다.

셋째, 한라산의 名所舊蹟은 靈室 五百將軍, 白鹿潭, 尊者庵이 대표적이다. 또 특이한 식물이나 무생물을 포함한 여러 자연물과 자연현상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라산 명소구적은 반드시 人文歷史 유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이 한라산 山水遊記에 나타난 명소구적의 특징이다.

넷째, 존자암은 험준한 山勢와 기암괴석 때문에, 超世俗的이며 原初的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 주변의 영실기암을 김상헌은 千佛峯이라 하고, 임제는 오백장군이라 명명하였으니, 영실기암의 ‘형식미’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그 意想은 한라산의 原初的 敍景美를 표상한다.

다섯째, 백록담은 神仙과 白鹿의 설화를 통해 신성성과 초월성을 강조하니, 原初的 純粹性으로의 回歸를 그 意象으로 한다. 老人星은 한라산에서 관찰이 가능한 별(星)로, 그 意象은 長壽와 國泰民安을 상징한다.

여섯째, 한라산경계는 敍景이란 객관물경과 유람자의 감정이 융합된 한라산 山水美의 예술경계를 의미한다. 모두 유학적 산수관을 견지하였는데, 이원조와 최익현은 한라산 등정을 聖人의 학문적 경지에 비유하여, 哲理的 세계를 表象하게 되었다. 따라서 傳來的인 한라산境界가, 성리학적 사유의 대상과 우주관에 입각한 理念美로 전환되었다.

주제어: 山水遊記, 한라산, 意象, 경계, 영실기암, 백록담, 노인성

## I. 서론

山水文學은 자연을 소재로 삼아 산수애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山水美를 형상화한 詩歌와 文學작품을 의미하며, 江湖歌道類는 물론 성리학적이념을 자연미로 형상화한 작품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산수문학의 하위 장르로 山水詩, 山水小品, 山水遊記가 있다. 산수시는 서경미가 형상화된 시를 의미하고, 산수소품은 詩의 序나 跋 또는 後記 등에서 산수에 대한 서경을 묘사한 짧은 형식의 산문을 의미한다.

山水遊記는 山水詩와 함께 산수문학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산문작

품으로 遊覽記의 성격이 강하다. 이외 地理誌의 성격의 山水記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산수유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sup>. 또 어떤 지역을 유람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見聞錄이 있으며, 단순한 유람의 여흥을 기록한 유람기, 일정한 목적에 따라 여정을 기록한 여행기 등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많은 분류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모두 산수유기 속에 포함할 수 있는데, 형식상「○○記」와「○○山記」또는「○○錄」이나「○○誌」라는 제목으로 산수유기의 하위장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遊○○山記」가 산수유기의 형식상 전형이며, 또「山水遊記」라는 용어가 장르명칭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遊」라는 글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유람적 성격이 의도적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산수유기는 유람적 성격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그런데「山水」라는 개념은 문학이나 예술에서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므로, 그 의미는 산수경물만이 아니라「자연」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산수유기는 반드시 특정한「山」을 유람한 것만이 아니라, 자연을 유람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산문형식의 여행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자연의 아름다움」이란 자연의「敍景美」를 의미한다. 서경미란 객관적 자연의 형식과 미적구성에 의한 아름다움을 지칭한다. 따라서 둘째, 산수유기는 자연의 객관적 서경미가 형상화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산수유기는 실제로 유람한 산수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상상 속의 자연이나 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에 실재하는 산이나 자연을 유람의 대상으로 한다. 즉 작가가 직접 찾아간 산수의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적 기록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상상적 산수나 어떤 목적에 의한 가상의 공간을 묘사하거나 기록한 산문작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셋째, 산수유기는 實在하는 현실의 공간을 체험적으

1)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4, 46쪽.

로 유람한 산문작품으로, 寫實性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체험적 유람은 路程이나 旅程에 따라 글이 전개된다.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의한 유람의 과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문작품이다. 그래서 유람의 연월일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지며, 전체적으로 여정에 따른 산수미를 순차적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넷째, 산수유기는 여정에 따른 順次的 기록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또 산수유람은 日常의 번잡함을 벗어나 산수를 유람하면서 느끼는 마음의 즐거움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난 한가롭고 시원한 심정을 의미한다. 곧 散懷의 즐거움이니, 賞心이다. 賞心은 직접 발로 걸어서 산수를 유람하며, 산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느끼는, 체험적 요소이며 심리적 현상이요 육체적 감각이다. 따라서 다섯째, 산수유기는 산수유람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散懷의 즐거움, 즉 賞心을 형상화한다.

이상의 내용은 山水樂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산수락은 감상자의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다르니,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산수유기를 통해 감상자의 山水觀과 山水樂을 살펴보면, 그 산수유기에 등장하는 산수의 意象과 意境을 탐구할 수가 있게 된다. 결국 유람한 산수의 美的境界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섯째, 산수유기 연구의 목적은, 유람하는 산수의 문학적 형상과 美的位相을 분석해 내어 그 산수의 미적경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以上을 이 연구의 전제와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데 한라산 山水遊記는 여러 편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林悌의 「南溟小乘」(1578)이 최초의 개인유람기라는 점, 金尙憲의 『南槎錄』(1601)은 관리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한라산탐방 중에서 대표적이라는 점, 그리고 金緻의 『遊漢拏山記』(1609)와 趙觀彬의 『遊漢拏山記』(1732), 李源祚(1841년)의 「遊漢拏山記」, 崔益鉉의 『遊漢拏山記』(1875)는 제목부터 산수유기로서의 형식을 갖추어 장르의식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끝으로 이은상의 『한라산 등반기』(1937)는 時調작가로서, 근대 한글로 된 한라산 산수유기라는 점에서 참고하고자 한다.

## II. 文獻情報와 樣式的特性

文獻은 인간의 구체적 삶의 표현이 可視的 言語形式으로 永續化되고 固定化된 物證이다. 그러므로 圖書 書籍 典籍 冊 등의 내용을 포괄할 뿐 아니라 金石文에 씌어진 문자들도 이 문헌의 개념에 包括된다. 근대에 와서는 文獻情報니 參考文獻이니 하여 그 記錄物 자체 즉 圖書 또는 書籍이란 뜻으로 차용 확대되어 현재에 쓰이고 있다.<sup>2)</sup>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헌은, 서론에서 언급한 한라산 산수유기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란 한라산 산수유기들의 문학적 검토를 위한, 객관적 지식이나 특징들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또 양식적 특성이란 개별작품의 형식이, 산수유기의 형식적 전형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구성상 전개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山水遊記를 세분한다면, 유람기, 여행기, 見聞記, 名所記, 名勝記 등으로 下位구분할 수가 있다. 또 『동국여지승람』이나 邑誌, 山川記 등과 같은 지리지적 성격의 양식과 征記類도 있다.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작품을 중심으로, 한라산 山水遊記의 문헌정보와 양식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林悌(1549-1597)의 「南溟小乘」(1578)

『林白湖集』 초간본은 그의 동생 林權이 수집하고 李恒福이 刪定한 定固本을 1621년 중제인 함양군수 林愔가 增補하여 木版으로 간행하였으니, 「跋」에 萬曆丁巳 八月上澣 通政大夫 行咸陽郡守 晉州鎭管兵馬 同僉節制使 林愔 謹識라 하였다. 분량은 4권 2책으로 총 150板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장본(도서번호: 奎1636)으로서 半葉은 10행 21자이고

2)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자서.

半郭의 크기는 22.8cm×18.2cm이다.<sup>3)</sup>

이 초판본에는 「南溟小乘」이 실려 있지 않다. 중간본은 임서의 현손 林象元이 靈光군수 재임 시에 4권 2책으로 간행하였는데, 역시 「南溟小乘」이 실려 있지 않다. 「南溟小乘」은 임제의 12代孫 林鍾弼이 1958년에 간행한 石印本 附錄에 『花史』와 함께 첨부되어 있다.<sup>4)</sup> 이 석인본은 초간본 4권에다 「南溟小乘」, 『花史』를 부록으로 첨부한 것으로, 근래에 간행된 것이니 元亨利貞 四冊이다. 그 跋에 檀紀 4291年 戊戌(1958) 小春 12代孫[林]鍾弼 謹識라 하였다. 따라서 「南溟小乘」은 3冊 亨 附錄에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南溟小乘」은 내용상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부분은 선조 10년(1577년) 11월3일 출발, 11월 9일 제주도에 도착하여 다음해 2월 9일 한라산 등정을 하기 전날까지이다. 둘째부분은 선조11년(1577년) 2월 10일 濟州牧을 출발하여 한라산 山行을 마치고, 2월 그믐날 추자도에 도착하여 귀향할 때까지이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첫째부분 끝과 둘째부분 끝에 한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글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부분은 마치 地理誌와 같이, 제주의 지리적 환경이나 산수의 특징, 제주목의 군사배치, 토양의 색깔과 특징, 주거환경과 돌담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 제주여성들의 의복의 간고함, 제주 방언에 관한 것, 자연 산물인 고사리와 방풍나물, 바람과 나무들이 자라는 방향 등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보고 들은 바’(見聞)를 기록한 것이니, 地方色이다. 여행기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잇달아 제주의 風土를 기록하였는데, 제주의 烈婦 千德(곽지 私奴 連斤의 妻)과 그 아비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甲寅年 봄 정월에 지은 긴 詩와 2월 5일 눈(雪)을 학(鶴)이라 착각한 뒤 지은 絕句 1수로 끝마무리를 하였다.

3) 임제, 『임백호집』(한국문집총간58), 범례, 248쪽.

4) 한국고전번역원, <http://itkc.or.kr>

5)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둘째 부분의 끝부분은 아주 짧다. 제주에서 추자까지의 뱃길과 위험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 뒤는 답청일 집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를 덧붙였으며, 귤에 대한 기록도 잊지 않았으니, 유자(柚), 당유자(唐柚), 감자(柑), 유감(乳柑), 대금귤(大金橘), 소금귤(小金橘), 동정귤(洞庭橘), 청귤(靑橘), 산귤(山橘)에 대한 것이다.

이 둘째 부분은 첫째부분과 비교하여 매우 소략하며, 특별히 제주에 관한 기록은 없다. 곧 전체 여행의 마무리로서 귀향 후를 언급하였으니, 「南溟小乘」의 대미를 장식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런데 「南溟小乘」이란 제목에서 제주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남명’은 남쪽 바다이다. ‘승’은 뗏목이다. 그러니 ‘소승’은 ‘작은 뗏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南溟小乘」은 ‘남쪽 바다에 띄운 작은 뗏목’ 내지는 ‘남쪽 바다에 작은 뗏목을 띄우다’ 정도로 이해된다.

이런 해석을 기본으로 문학적 상상을 더하면, 「南溟小乘」은 제주여행을 神仙이 작은 뗏목을 타고 놀이를 하듯, 탈속의 공간으로 유람한 즐거움을 기행문형식(山水遊記)으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임제는 제주(특히 한라산)를 脫俗의 空間으로 인식하여, 초월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仙境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남명소승」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

## 2. 金尙憲(1570-1652)의 「南槎錄」

초간본 김상헌의 문집은 『淸陰集』인데, 自編稿를 바탕으로 약간의 증보를 하여, 1654년 경 木板으로 손자 壽增, 壽恒, 壽興 등이 간행하였다. 이 문집에는 「남사록」이 실려 있지 않다. 「남사록」은 『淸음유집』에 실려 있다. 목판본이며 4권 乾坤 2책으로 17세기 초에 간행되었으나, 정확한 간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다.<sup>6)</sup> 크기는 25.5×18.3cm이다. 판심은 上下內向花紋魚尾이다.<sup>7)</sup> 「남사록」은 1998년 제

6) 한명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남사록』 해제.

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남사록』 서지정보.

주도에서 발간한, 『濟州史資料叢書(Ⅰ)』에도 영인되어 실려 있다.

「남사록」은 만력29년 선조 35년(1602)辛丑 8월 10일 乙亥 辭朝하여,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김상헌이 어사로 제주에서 수행한 임무와 見聞을 기록한 것이다. 제주의 자연환경과 풍속 등을 기록한 것으로, 넓은 의미의 산수유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김상헌이 제주를 방문한 목적은, 국왕의 어사로 당시의 역모사건을 다스리고, 제주의 여러 상황을 점검할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었다.

선조 35년 신축 7월에 제주목사 성윤이, 선산인 길운절과 익산인 소덕유 해남 중(僧)혜수 등이 제주에 들어와, 몰래 제주사람 문충기, 홍경원 등 10여인을 꺾어, 목사이하 삼읍 수령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킬 거사를 도모하였다고 啓를 올렸다<sup>8)</sup>. 이에 국왕은 김상헌을 어사로 파견하였다. 이 때 비변사를 통해 17條의 임무를 부여하였는데<sup>9)</sup>, 「남사록」은 대체로 이런 임무의 수행에 대한 기록이 중심을 이룬다.

그 가운데 국왕의 명을 받아 김상헌은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한라산을 오른다. 이 한라산 등정기록을 한라산 산수유기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라산 등정의 동기가 공무수행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동기에 불과하며, 특히 관리들의 유산에는 흔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남사록」의 한라산 등정 부분은 내용상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선조 34년(1601) 9월 23일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출발하여, 정상에서 1박하고, 제사를 마친 다음 9월25일 제주 객사로 돌아오기까지이다. 이 부분은 어사로서 임무 수행을 위한 공적인 활동이므로 그 묘사와 글의 전개가 매우 빠르다. 23일 출발, 24일 한라산 절정으로 오르는 주변의 지형과 산세들에 대한 객관적 묘사가 자세하다. 존자암 도착,

8) 김상헌, 『남사록』, 권지일. “主上三十五年辛丑七月 濟州牧使成允文馳 啓善山人吉雲節 與益山人蘇德裕 海南僧慧脩等 入來本州 潛誘土民文忠基洪敬源等十餘人 謀殺牧使以下三邑守令 舉州以叛”

9) 김상헌, 앞의 책. “備邊司別爲事目十七條”



그리고 천불동과 수행굴을 지나 절정에서 1박, 그리고 25일 정상 백록담 북쪽 구석의 壇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下山할 때까지이다.

둘째 부분은 제주 객사에 도착하여 김상헌이 한라산에 오르기까지 보고 들은 내용과,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알게 된, 한라산의 산세와 동식물, 기후, 토양의 색깔과 특징, 존자암 등의 舊蹟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문장 첫머리에 인용한 ‘地誌에 의하면<sup>10)</sup>’이라는 전제와 같이, 그 기술이 매우 객관적이다. 또 「남명소승」이나 「표해록」 「충암록」 등의 기록을 살피면서, 그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자신의 의견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청음의 의도는 어사로서,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 풍습 등에 대한 기록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국왕이 제주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읽는 이로 하여금 제주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이 비록 한라산과 제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는 있지만, 「산수유기」의 특징인 유람적 성격과 탈속적 散懷의 즐거움과 느긋한 놀이로서의 여유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글 전체에 긴장감이 흐른다. 결국 「남사록」은 공무의 기록에 철저하였기에, 「산수유기」의 문학과 장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남사록」이란 제목이 유람기임을 짐작하게 한다.

왜냐하면 ‘槎’란 ‘뗏목’을 의미한다. 이것의 문학적 상징성은 ‘신선의 뗏목’ 혹은 ‘신선과 같이 노니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南’이 제주를 의미하므로, 「남사록」의 상징적 의미는 ‘제주 유람 기록’이라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남사록」이 공무수행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한라산 등정 부분만은 넓은 의미의 산수유기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10) 김상헌, 『남사록』, 제주사자료총서(I)(제주도, 1998), “地誌漢拏山在州南二十里 其曰 漢拏山以雲漢可拏引也.”

## 3. 金緻의 『遊漢拏山記』(1609)

이 글은 李元鎮의 『耽羅志』에 실려 있는데<sup>11)</sup>, 이후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도 실렸다<sup>12)</sup>. 후대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김치의 저작 속에 실려 있는 글은 아니다. 김치(1577-1652)는 광해군 1년인 1609년 3월 제주관관으로 부임하여 1610년 9월에 제주를 떠났다. 김치는 1609년 4월 8일 한라산 유람에 나섰다.

존자암에서 1박 후 다음날 정상에 오르고, 곧 성으로 되돌아와 유람을 마쳤다. 며칠 후 閔應生의 권유로 한라산 산수유기를 짓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 김치의 『遊漢拏山記』는 산수유기로서의 장르의식이 명확하였다고 할 것이다. 작가가 이런 장르의식을 가졌느냐의 여부는 문학의 형식과 내용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장르는 세계인식의 양식이며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치가 『遊漢拏山記』를 지었다는 것은, 산수유기의 문학적 특성과 양식적 고유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치의 『遊漢拏山記』는 조선조 문학사에서 산수유기 양식의 전개와 흐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첫째 부분은 한라산 등정의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제주의 탐라통판을 제수받아 평생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었던 뜻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부임 10여 일만에 민응생의 권유로 한라산 유람을 결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부분은 4월 8일 민응생, 李孝誠, 鄭麒壽 등과 함께 성을 출발하여 다음날 성으로 돌아오기까지이다. 鐵川기슭을 따라 올라 獐嶽을 거쳐 三長洞, 浦涯嶽을 넘어 존자암에 이르러 1박하였다. 다음날 승려 修淨의 안내로, 靈室을 출발하여 七星臺를 지나 정상인 穴望峯에 이르렀다. 여기서 사방 景概를 바라보고, 날이 저물 무렵 下山하여, 성문이 닫히려는

11) 이원진, 『탐라지』, 題詠, 金緻 遊漢拏山記

12) 이원조, 『탐라지초본』, 권일, 제주, 山川, 金緻遊山記

밤에 도착하였다.

셋째 부분은 『遊漢拏山記』를 짓게 된 연유를 기록하였다. 민응생이 김치에게 한라산유람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권유로, 『遊漢拏山記』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우 간략한 언급인데, 사실적으로 분명한 끝맺음이나 아쉬움이 남는다. 문학적 수사, 끝맺음을 위한 地誌的 서술, 유람후의 심정 등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면, 산수유기로서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다.

#### 4. 趙觀彬의 『유한라산기』

趙觀彬(1691-1757)의 『유한라산기』는 『悔軒集』 권15, 記에 실려 있다. 『悔軒集』은 1762년 경 芸閣活字로 印影한 것이다. 분량은 20卷 10冊으로 총792板이다.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은 半葉 10행 20자이고 半郭은 21.7×14.2cm이다.<sup>13)</sup>

『유한라산기』는 悔軒이 제주 유배시에 지은 글인데, 이외에 「遊南溟記」와 「見老人星記」도 역시 1731년 제주 유배생활 중의 작품이다. 「遊南溟記」의 앞부분에는 회헌이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오게 된 경위와 도착까지의 항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 서울에서 제주까지의 여정과 항로를 잘 알 수가 있다. 자신은 辛亥년 겨울 賊臣과 戚臣 倖臣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을 임금에게 상소하였다. 이에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禍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그는 죽음으로 힘껏 논쟁하여 임금이 仁恩으로 대정현 유배를 명하였다는 것이다<sup>14)</sup>. 아마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함인 듯도 하다. 그리고 제주까지의 여정과 항해의 어려움을 기록하였다.

신해년(1731) 11월 20일 회헌은 서울을 출발하여, 10일 정도 걸려 전라도 康津에 도착하였다. 15일 가랑 바람을 기다려 12월 17일 출발하여 莞

13) 『한국문집총간』 211, 범례.

14) 趙觀彬, 『悔軒集』, 권15, 기, 「유남명기」, “余辛亥冬 以栢府長 疏論賊臣及戚臣 倖臣之誤國者 疏上 天怒遽震 卽命入對前席 禍將不可測.....以死力爭 上遂貸以 仁恩 命竄大靜地.”

島에 도착하니 130 리였다. 또 수일을 머물다 4일을 넘기고, 栢島에 도착하였으니 20 리였다. 다음날 새벽 돛을 올리려했으나 밤에 바람이 심하여, 所安島로 옮겨 3일을 머물렀다.

드디어 29일 새벽 배를 띄었다. 200리 쯤 남쪽 푸른 물결이 하늘에 닿는 곳에 산과 섬이 있어 좌우에 물으니, 한라산과 火脫島라고 하였다. 또 몇 백리를 지났는지 모를 즈음 파도가 매우 흥흥하니, 天神을 부르고 觀音을 외우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였다. 別浦에 이르니 바닷길이 진정 9백리였으며, 夜三更이었다<sup>15)</sup>. 드디어 제주에 도착한 것이다.

「遊南溟記」는 사나운 풍파를 헤치고 생사를 넘나드는 항해를 통해, 제주와 육지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의 험난함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매우 박진감이 넘친다. 또 사실적 묘사와 빼어난 문장에 당시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의 모습과 항로를 생생히 再現해내고 있으니, 글을 읽으면 직접 경험하는 듯하다. 해양문학작품이라고도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유한라산기』는 「遊南溟記」의 연속물이다. 이 둘을 분리하여 각각의 작품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함께 살펴볼 때, 『유한라산기』의 작품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見老人星記」는 壬子년(1732) 2월 23일 대정현 謫居地에서 완성하였다.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의 衡山과 우리나라 漢拏山뿐이란 점과, 노인성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것이다. 또 極南에 자리하여, 오직 춘분과 추분에 잠시 나타난다는 것과, 이 별에 대한 천문지식을 앞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다. 회헌은 한라산 절정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다고 하여, 한라산 절정에 오르고 싶었으나, 그 때 한라산이 추워 제주 사람

15) 조관빈, 앞의 책, “即日作行 及到康津海口 則已數十餘日矣……候風留半月 始以十二月十七日發船 抵莞島 可百三十里 …… 請留數日 …… 越四日抵栢島 可百二十里 欲於翌曉舉帆 …… 自是夜 風色甚惡 仍留四日…… 舟人請利向所安島 …… 又留三日 …… 二十九日曉 善鍊云風可乘……已得解纜於別浦 海程真是九百 而夜正三更矣.”

들이 만류하였다.

그런데 수개월 뒤 회헌은 대정현의 남쪽에서, 武人 吳世賢의 도움으로, 丁方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었다. 뜻밖이며 놀라운 일이었다. 한라산 정상인 아린 대정현의 남쪽에서 노인성을 보았다는 것은, 당시의 노인성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과 통설에 비추어 의외였다. 회헌은 노인성이 壽星이라 제주가 壽鄉이라 일컬어진다고 하였으며, 노인성을 보고 난 후의 감회와 소망을 기록하였다.

중요한 기록으로 천문학적으로 참고할 만하니, 당시 천문은 나라의 흥망을 짐작해보는 중요한 예언이며 지식이었기에, 의미있는 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명승구적을 기록한 것이니, 역시 『유한라산기』와 함께 산수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이 좋을 것이다. 이상을 살펴볼 때 회헌의 장르구분은 상당히 명확하다 하겠다.

『유한라산기』는 회헌이 한라산유람을 마친 다음날 완성하였다.<sup>16)</sup> 따라서 생생한 기억 속에서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부분은 회헌이 제주에 오게 된 연유와 한라산에 대한 첫인상이다. 둘째부분은 4월 15일 새벽, 한라산등정을 출발하기까지이다. 셋째부분은 한라산 등정과 하산까지이다.

그런데 하산이후의 기록이 없다. 대체로 산수유기의 끝부분은 유람한 산수에 대한 지리지적 기술이나 유산 후의 감회로 마무리 하는데, 회헌은 ‘다음날 기록하였다.’라는 짧은 구절로 글을 마쳤다. 이것은 산수유기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회헌이 비록 「유한라산기」라는 제목으로 산수유기의 형식을 따랐지만, 글의 구성상 산수유기의 특징과 전개를 완성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장르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16) 조관빈, 「유한라산기」, “下山 日猶未昏 其翌日 爲之記”

## 5. 李源祚(1782-1871)의 「유한라산기」

이원조의 호는 凝窩이며 본관은 星山이다. 조선조 순조에서 고종까지의 문신이다. 응와는 헌종 7년(1841) 정월 제주목사를 제수받고 3월 제주 禾北鎭으로 들어와, 헌종 9년(1843) 8월까지 근무하였다. 응와의 제주도 관계문헌은 미발표 필사본으로 『耽羅錄』 『耽羅誌草本』 『耽羅關報錄』이 있다. 「유한라산기」는 『탐라록』 上에 실려 있다.

응와는 부임한 해인 1841년 秋分 다음날 한라산 등정을 출발하였다. 죽성촌에서 1박하고, 하산길에 또 1박하여 총 2박3일의 일정이었다. 여정은 竹星村, 백록담, 靈室, 대정현의 경계를 거쳐 今德과 郭寧을 지나 四所목장, 利生, 西門, 감영이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자세하며 상당히 긴 글이다. 그래서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첫째 부분은 죽성촌에 1박하기까지이다. 이것은 다시 둘로 나뉘어진다. 출발 직전까지의 부분은 일종의 서문에 해당한다. 우선 神仙家의 한라산에 대한 생각 즉 산수관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견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신은 등산을, 道를 배워 공자의 지위에 이르는 것과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凝窩의 儒敎的 山水觀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은 한라산에 대한 인상을 말하였다. 처음에 한라산이 심히 높고 험준해 보이지 않았으나, 사라봉에 올랐을 때의 경험으로, 올라갈수록 한라산이 점점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라산 등산을 결심하고 추분 다음날 출발하였다<sup>17)</sup>고 했다.

둘째 부분은 죽성촌에서 1박 후, 백록담 정상에 오르기까지이다. 地勢의 험난함과 기이한 식물들을 보는 신기함을 서술하였다. 특히 참대(苦竹)와 영주실(瀛洲實)에 대한 기록을 잊지 않았다. 風土色을 단번에 상징하는 식물이기 때문이다. 또 백록담에 오르는 험준함과 지리적 특징, 說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공자를 거론하여 유가적 산수관을 논하면서, 靈室의 산수미를 언급하였다.

17) 이원조, 『탐라록』 상, 「유한라산기」, “以秋分之翌簡 騶率騎而出”

셋째 부분은 下山길이다. 유가적 산수관에 의한, 하산을 교훈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며, 육체적 어려움을 위로했다. 대정현을 지나면서 加波島와 松岳山, 磨羅島, 知歸島와 같은 遠景을 묘사하였다. 두 번째 산행의 밤을 맞이하여, 영실의 오백장군을 언급하며 공자의 道와 六藝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오백장군 설화에 대한 유가적 입장 표명이니, 한라산이 神山이라는 불교적, 무속적, 노장적 산수관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노인성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말하였다.

넷째 부분도 하산길이니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四所목장을 나와 길이 평탄하고 마을이 가까워지자, 주자의 「무이구곡가」 중 제9곡을 암송하였다<sup>18)</sup>는 내용이다. 제9곡은 武夷山 유람을 마치고 나서, 다시 平常의 雨露桑麻가 있는 평범한 인간 생활의 공간을 노래한 것이다. 즉 소박한 마을을 보자 인간의 신선계는, 평범한 日常에 있고 인간세상을 초월한 또다른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朱子의 유가적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산길의 편안함과 일상의 즐거움에 대한 凝窩의 世界觀을 드러내고 있다.

## 6. 최익현(1833-1906)의 「유한라산기」

『勉菴集』, 권20, 記에 실려 있다. 초간본은 1909년 木活字로 간행되었으며 원집40권, 속집권2권, 부록4권 총 23책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면암속집』도 1931년 木活字로 간행되었고, 2권 1책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다.<sup>19)</sup>

형식적 구성면에서, 면암의 「유한라산기」는 조선조 유학자의 전형적 산수유기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산수유기의 형식은 세부분으로 나눈다. 첫째 부분은 유산의 동기와 출발직전까지이다. 둘째 부분은 登山과 下山부분이다. 셋째는 下山 後 遊記작성에 관한 것이다. 이 셋째 부

18) 이원조, 앞의 책, “馬上誦武夷權歌九曲 將窮眼豁然桑麻 雨露見平川之句”

19) 양기정, 면암집해제,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co.kr>

분에 유람한 산의 총평이나 地理誌的 지식 그리고 지방색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이런 면에서 면암의 「유한라산기」는 전형적 형식을 잘 지키고 있다. 그만큼 형식적 세련미와 장르인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면암의 「유한라산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겠다.

첫째부분은 면암이 제주로 유배오게 된 경위에 대해 짧게 언급하였으니, 고종10년(1873) 癸酉 겨울 조정에 죄를 지어 탐라로 귀양을 갔다라고 하였다<sup>20)</sup>. 그리고 제주도 읍지를 읽고 한라산을 오른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제주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는 한라산이 4백리에 뻗쳤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5월에도 눈이 놓지 않으며, 산꼭대기에는 신선들이 내려와 노니니, 三神山의 하나라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乙亥년(1875) 봄 귀양이 풀려, 한라산 탐방을 계획하였다. 제주 선비 李琦南에게 인도를 부탁하여, 어른 10여 명과 중 5-6인과 더불어 3월 27일 한라산 등산을 출발하였다.

둘째부분은 등산과 하산부분이다. 출발은 제주의 南門이었다. 訪仙門을 지나 竹城에 도착하여 1박하였다. 다음날 中山을 거쳐 白鹿潭에 이르렀으며, 북쪽으로 1리 정도 穴望峯과 떨어진 곳까지 올랐다. 하산은 산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다, 20리 쯤 되는 곳에서 다시 둘째 밤을 지냈다. 다음날 靈室에 이르러 五百將軍을 보고, 20리 쯤 걸어 서쪽 골짜기로 나와, 제주로 되돌아 왔다. 총 2박 3일의 일정인데, 특이한 점은 영실에서 露宿하였다는 점이다. 면암의 이런 노숙은 한라산 유람의 興趣와 멋을 더하는 등산의 묘미이니, 賞心과 風流를 단 번에 알 수 있다.

셋째부분은 山水遊記를 작성하면서, 제주에 대한 지리지적 소개와 소회를 밝혔다. 이 또한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前半部는 제주가 백두산에 根本한다는 것이다. 백두산이 남으로 4천리를 달려 靈巖의 月出山이 되고, 또 남으로 달려 海南의 達磨山이 되었으며, 달마산이 5백리 바다를 건너

20) 최익현, 『면암집』, 권20, 記, 「유한라산기」, “上之十年癸酉冬 余得罪朝廷 貶于耽羅”



楸子島가 되고, 또 5백리를 건너 한라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리지적 설명은 객관적 사실의 근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그 의도는 濟州가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라, 육지와 한덩이로 연결된 우리의 국토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제주의 지형과 산물, 인물, 산세의 形局과 地勢 등을 설명하며 풍수지리적 견해를 덧붙이어 제주의 位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後半部는 제주가 국토방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그 産物의 중요함이 어떠한가를 강조하였다. 끝으로 한라산에 대한 자신의 山水觀을 언급함으로써 「유한라산기」를 끝내고 있다. 그 이유는 한라산의 진면목을 소개하여, 신선과 관련한 황당한 이야기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까닭은 옛날 현인들의 빼어난 산수유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sup>21)</sup>.

이 대목에서 면암이 「유한라산기」를 지은 궁극적이며 공리적인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유한라산기」를 지어,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한라산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잘못된 神仙의 산수관을 바로 잡고, 제주의 지리적 중요성과 국가적 공헌도를 밝히고자 함이었다. 이것은 결국 儒家로서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勉菴의 山水觀을 드러낸 것이다. 매우 개성적이며 완결된 끝맺음이다.

### III. 名所舊蹟과 景物意象

한라산 山水遊記는 한라산 登攀記라고 함이 더욱 어울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넓게 보면 제주는 모두 한라산의 기슭이 해변까지 넓게 펼쳐진 곳이요, 좁게 보면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한 中山間 이상의 부분을 일컫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라산 유기의 대부분은 한라산 정

21) 최익현, 앞의 책, “其在前賢巨筆 終不得一經發揮 故世之好事者 只以神仙荒唐 虛無之說亂之 而不及其他焉 豈山之所性也哉.”

상인 백록담까지의 등반을 중심으로 한 기록들이므로 그 내용은 간단하다. 제주에서 출발하여 竹城이나 訪仙門을 지나 靈室을 거쳐 白鹿潭에 오르거나, 아니면 下山 길에 영실을 지나 대정을 거쳐 제주로 돌아오는 두 갈래의 등반여정이 대부분이다.

자연히 이 두 가지의 여정에서 만나는 명소구적은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中山間 이상 백록담 정상까지는 人家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인문유산이 남아있지 않다. 원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天然의 자연이요 山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라산 등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신비로운 기대감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名所舊蹟은 한정되어 있다. 즉 靈室 五百將軍, 白鹿潭, 尊者庵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식물이나 무생물을 포함한 여러 자연물과 자연현상은, 遊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깊은 지방색으로 느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苦竹과 瀛州實, 말(馬), 白鹿, 바위, 나무, 바람, 구름, 토양, 老人星 그리고 5월의 눈(雪)과 기후 등이다.

따라서 한라산의 명소구적과 景物은 반드시 人文歷史 유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천연의 산수경물과 대자연의 현상과 동식물이 명소구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한라산 山水遊記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명소구적의 가장 큰 특징이다. 동시에 다른 지방의 山水遊記와는 확연히 다른, 한라산 山水遊記만의 특징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곧 文明을 벗어난 天然의 명소구적과 景物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意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존자암에 대하여 살펴보자. 존자암은 한라산 명소구적 중 유일한 인문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임제는 존자암에서 4박하였고, 김치도 1박하였다. 김상헌은 존자암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따라서 존자암은 한라산 유람을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존자암은 불교사찰이며 승려들의 수련처이다. 당시에도 불교사찰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었다. 단지 한라산 유람을 위한 사람들이 하룻밤 머물며, 승려들로부터 백록담 등정의 안내를 받거나, 기후의 변동에 따른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임제는 존자암에 4일을 머물렀지만, 존자암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저 날씨가 좋지 않아 4일을 머물며 소일하였을 뿐이다. 이것으로 보아 임제는 존자암을 한라산 유람을 위한 임시거처나 피난처 이외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다. 김상헌은 왕의 명령으로 산신제라는 공무수행을 위해 한라산에 올라, 존자암이란 詩를 남겼다.

<尊者庵>

圓岳隆然勢自雄  
小庵高寄白雲中  
路穿黃竹千盤曲  
窓壓南溟萬里通  
經始遠縱三姓日  
廢興重費幾年功  
居僧寂莫遊人少  
門掩蒼苔落葉紅

<존자암>

둥근 산은 높이 솟아 기세가 절로 으뜸이요  
작은 암자는 백운 속에 높이 의지하였구나  
길은 황죽 사이를 뚫으며 천구비를 도는데  
창은 바다를 발아래 두고 만리에 통하였도다  
讀經은 멀리 三姓이 태어나던 날 시작되었으니  
흥폐를 거듭하며 몇 년의 공력으로 이루었던가  
거처하는 승려는 적막하고 유람객조차 적으니  
문은 푸른 이끼로 덮이었고 낙엽만이 붉구나

위의 시 제1-2구는 존자암의 풍수지리에 관한 것이다. 지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남사록』에서, 암자의 지세는 지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따랐다고 하였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풍수지리에 맞추어 언급하였다.

북쪽의 봉우리는 둥글고 험하며, 가파르다 점점 낮아지니 황홀함이 마치 봉황이 나래를 펼친 듯, 아래로는 웅크리고 그 병아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듯한 것은 玄武의 기이함이라고 하였다. 남쪽은, 차가운 샘물의 근원이 깊어 맑고 맑으니, 소위 月德의 방위로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니, 朱雀의 기이함이다. 동쪽은, 산이 잇달아 뻗으며 길게 연이어 있어, 허리가 왼팔의 끝을 풀려는 것은, 靑龍의 빼어남이다. 서쪽은, 꼬리를 끌고 다시 머리를 향하여 가다, 마치 오른 손으로 그 무릎을 쓰다듬으려 하는 것은, 白虎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니 이곳은 지리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sup>22)</sup>

22) 김상헌, 『남사록』, 존자암, “庵之面勢 多協相地書 以言其基也 則主峯磅礴而陟

이와같이 관찰에 의한 존자암의 위치를 풍수지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객관적이다. 요약하면, 존자암의 지리적 위치는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합당하고, 빼어난 산수미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풍수지리적 조건에 의한 주변 산수의 아름다운 경계를 제3-4구에서 노래하고 있다. 청음은 존자암의 산수경물로, 기암괴석과 뾰뾰한 삼림을 언급하였으니, 조물주의 재주와 정성과 토지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3)</sup>. 그래서 존자암은 신선이 眞人을 따라 항상 소요하는 것 같다고 하였으니, 존자암 산수의 意象을 말한 것이다.

즉 존자암은 地勢가 유리하며 山勢가 험준하고, 기암괴석과 森林에 둘러싸인 超世俗의 공간으로 신선계를 상상케 한다는 것이니, 존자암 山水의 意象을 형상화하였다.

제5-6구는 존자암 창건과 중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존자암은 高梁夫 三姓이 처음 일어날 때에 창건되었으며, 여러 번 흥폐가 있었음을 상기한 것이다. 제7-8구는 현재의 존자암에 대한 것으로, 승려는 거의 없고 유산객도 없어 적적하고 한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자암이 퇴락하여 불교사찰로서 영향력이 희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적 의미로 해석하면, 존자암의 초세속적 정밀과 원초적 고요를 노래하고 있다. 결국 청음은 존자암을 풍수지리적으로 관찰하고 산수를 감상한 후, 意象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존자암은 초세속적 공간으로, 원초적 정밀과 고요를 함축하는 수행처로서의 意象을 표상한다.

또 주목되는 한라산 명소구적은 靈室의 五百將軍이다. 임제의 『남명소승』에 ‘산 밑에서 존자암까지 30여리이고, 존자암에서 영실까지 또한 30여리’라고 하였다. 영실을 ‘오백장군동’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圓 峯嶺而漸低 悅若鸞鳳翱翔 而下蹲愛視其雛者 玄武之奇也 寒泉源深而鏘注 澄淥而香冽 所謂月德其方 而不渴於嘆旱者 朱雀之異也 迤邐而蜿蜒 腰如左臂之 欲解其紐者 青龍之勝也 拖尾而復行頭 如右手之將按其膝者 白虎之美也 此地理之美也<sup>『</sup>

23) 김상헌, 앞의 책, “是化功之殷勤而成之歟.....是后媼之盡瘁鼃鼃而植之歟”

오백장군동에 가서 놀았다. 동은 일명 영곡이라 한다. …… 또 기암이 있으니 사람이 물가의 산 위에 서있는 것 같다. 무려 천백이니 골짜기의 이름은 이것을 생각한 것에서 얻은 것이리라.<sup>24)</sup>

김상헌은 ‘산기슭으로부터 존자암까지의 거리가 또한 40리’라고 하였다. 또 존자암에서 산정상까지의 거리가 40여 리<sup>25)</sup>라고 하였으니, 영실은 정상에서 10리 아래이다. 매우 멀고 높은 곳이다. 험난한 산길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영실에 있는 기암괴석들을 ‘千佛峯’이라 명명하였다. 그 까닭은 ‘일명 도를 닦는 골짜기인데 속칭 영곡이라 한다. 여러 봉우리에 괴석이 험준하게 솟아 세속의 흔적이 없으니, 여러 부처가 손을 모은 것과 같다. 봉우리이름은 이런 까닭이다<sup>26)</sup>’라고 하였다. 나아가 임제의 오백장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그 이름을 부정하였으니, 註에서 “여러 책들을 살펴보니 오백장군이란 이름은 없다, 아마 골짜기의 이름이 子順에게서 비롯된 것이리라.”<sup>27)</sup> 라고 하였다.

이런 언급은 오백장군이란 이름에 대해 여러 책을 찾아서 그 명명의 연유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리고 김상헌이 얻은 결론은 오백장군이란 이름의 근거를,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임제가 붙였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서 『남사록』의 집필의도가 공무적인 객관적 기록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적 전설로 민간 설화를 대신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즉 북위 때의 불교 박해로 그 스님들이 제주로 도망쳐 이곳에 이르렀다고 노래하였다.

다시 말해 김상헌은, 임제의 오백장군이란 이름이 당시의 정치현실과 제주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오백장군 설화는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비록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24) 임제, 『남명소승』, “往遊五百將軍洞 洞一名靈谷……又有奇巖 立於水邊山上者 無慮千百 洞之得號 想以此耶.”

25) 김상헌, 앞의 책, “到尊者巖少憩 自山麓距此 又四十里 …… 州人等 齊告曰 今日 日勢已晚 …… 山頂尙四十餘里.”

26) 김상헌, 앞의 책, “一名行道洞 俗稱靈谷 諸峯怪石削拔 如衆佛拱手 峯名以此.”

27) 김상헌, 앞의 책, “按諸書 無五百將軍之號 疑洞名始於子順也”

있더라도, 관리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당시 제주의 상황에서 부적절하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감상헌의 ‘천불봉’이란 명칭을 산수문학적 입장에서 고려하면, 이는 ‘산수의 형식미’에 주목한 것이다. 遊賞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니, 遊賞은 遊山의 초탈한 심경에서 敍景을 감상하는 것이다.<sup>28)</sup> 그렇기 때문에 감상헌의 ‘천불봉’이란 명명은 불교적 신앙과 거리가 멀다.

또 임제의 ‘오백장군’이란 명명도 민간 설화와 무관할 것이다. 단지 영실에 이르러 천백이나 되는 기이한 봉우리를 보고 감탄을 마지않았던 것이니, 그 봉우리의 형상을 통해 오백장군을 연상한 것이다. 따라서 ‘천불봉’이나 ‘오백장군’이란 명칭은, 영실기암의 기이함과 신비함 그리고 기묘한 형상들에 대한 감탄의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영실기암이 신선사상이나 원시적 山川 숭배사상 나아가 불교적 초월관을 엿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김치는 기암괴석의 모양이 羅漢과 같으니 오백 餘라고 하였다.<sup>29)</sup> 최익현은 모두 부처의 모습으로, 그 수가 百千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곧 그 이름이 천불암 혹은 오백장군이라 하였다<sup>30)</sup>. 이원조도 「유한라산기」에서, ‘사람이 보면 사람이요 짐승이 보면 짐승이라, 나한이란 이름도 이 때문이다<sup>31)</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김치와 최익현 그리고 이원조는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였을 뿐으로, 어떤 私見이나 비평을 하지 않았다. 산수감상이 수용적이다. 따라서 영실기암은 현실감 있는 의미존재요 산수경물로서, 한라산 山水의 原初的 敍景美를 함축하는 意象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라산의 명소구적은 白鹿潭이다. 백록담이야말로 제주의 중심이요 한라산 遊山의 핵심이다. 그 이유는 첫째 백록담의 공간적 위

28) 손오규, 「퇴계의 산수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86쪽.

29) 김치, 「유한라산기」, “上有怪石 狀如羅漢者 五百有餘”

30) 최익현, 「유한라산기」, “亦憊是佛形 其數不但以百千計焉 卽名千佛巖 亦所謂五百將軍也”

31) 이원조, 「유한라산기」, “人視則人 獸視則獸 羅漢之名以此.”

치이다. 지리적으로 백록담은 백두대간이 뺏어 내려와, 영암의 월출산을 지나 해저를 거쳐, 솟아오른 한반도 최남단의 높은 봉우리이다. 그 뿐 아니라 백두산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산이다. 거기다 제주라는 섬에 솟아 있는 산이다.

어떻게 南島에 이런 높은 산이 솟아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지리상의 위치가 한라산이 갖는 공간적 의미로 경이로움을 자아낸다. 많은 유산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여 언젠가 꼭 한 번은 올라보고 싶은 명산이기도 하다. 이 명산의 가장 높은 곳, 그 꼭대기에 있는 산정호수가 백록담이다. 비록 크기는 작으나 매우 신비롭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호수는 낮은 곳에 있다. 그런데 백록담은 높은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산정호수이기 때문이다.

이 물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 깊이는 어떨까. 과연 물맛은 어떠한가. 주변 산수는 어떠하며, 어떤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을까. 등등의 의문점이 꼬리를 문다. 이 모든 것들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찾아가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검증해 보고 싶다.

그래서 드디어 한라산 등정을 결행한다. 임제는 백록담에 오른 감회를, ‘속세의 흔적이 한 점도 없고 인간세상은 삼천리를 격했으니 마치 봉황의 울음을 듣는 듯, 황홀히 신선의 수레를 보는 듯하다<sup>32)</sup>’고 하였다. 김치는 ‘표연히 遺世獨立하여 羽化登仙이니 말이나 글로 내 마음을 그려 낼 수가 없다.’<sup>33)</sup>라고 하였다. 최익현은 ‘백록담 모습의 대단함이 仙人의 흔적이 있는 듯하다’<sup>34)</sup>고 하였다.

이처럼 백록담이 신선의 경계인 듯 느끼는 것은, 둘째로 백록담의 맑은 물(水) 때문이다. 모두가 이 맑고 깨끗한 물이 세속의 흔적이 없음에 감탄하였다. 이 물이 산정의 호수를 이루고 있으니, 근원에 관심이 집중

32) 임제, 앞의 책, “到絶頂.....無一點塵埃之氣 人間風日 遠隔三千 疑聽鸞簫 悅見芝車.”

33) 김치, 앞의 글, “飄然若遺世獨立 羽化登仙 無有言語文字之可狀.”

34) 최익현, 앞의 책, “隱若有仙人種子”

된다. 한결같이 백록담의 물을 신선과 연결하여, 백록으로까지 상상이 이어진다. 그래서 셋째로, 백록담이 신선의 경계인 듯한 것은 백록에 얹힌 설화 때문이다.

임제는 존자암 청순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백록에 관한 설화를 기술하였다. 사슴의 무리 중 우두머리가 백록이며, 그 등에는 백발노인이 타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헌은 임제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牧使 梁士瑩과 李慶祿 재임 時 백록을 잡았다고는 하나 그 전후로 본 사람이 드물다고 하였다.

따라서 백록담은 신선이 사는 초월적 공간이요, 물 또한 백록이란 신성한 동물이 마시는 고귀한 것임을 강조한다. 결국 이 설화는 백록담의 신성성과 초월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신선사상과 결부된 산천승배사상과 함께 고대신앙의 원시 종교적 의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白鹿潭은 原初的 純粹性으로의 回歸를 상징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意象을 표상한다.

다음 한라산 명소구적은 老人星을 들 수 있다. 사실 老人星은 한라산에서 관찰이 가능한 별(星)이다. 그러므로 인문역사적 유물이거나 山水名勝도 아니다. 그러나 老人星을 관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장소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노인성은 정조17년 癸丑(1793)겨울, 어사 沈樂洙를 제주로 보내어 과거를 시행하였으니, 論策詩賦銘頌으로 시험하였다. 그 때 頌의 제목으로 ‘老人星’을, 論의 제목으로는 ‘觀於海者難爲水’를 출제하였다.

趙觀彬은 적거지인 大靜에서 노인성을 보고, 「見老人星記」<sup>35)</sup>를 지었다. 그는 별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은 ‘사람의 일과 반드시 應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노인성을 보게 된 경위를 말하였다. 노인성은 중국의 衡山과 제주의 한라에서 볼 수 있으니, 대개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며, 秋分과 春分에 잠시 나타난다고 하였다.

춘분에 武人 吳世賢의 도움으로 대정의 남쪽에서 노인성을 보게 되었

35) 趙觀彬, 悔軒集, 권15, 記



다는 것이다. 그리고 옛날부터 제주에 백세노인이 많아 평소 수향이라 일컬었는데 이것이 더욱 효험있는 것이다<sup>36)</sup>라 하였다. 또 老人星은 國泰民安을 상징하므로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매우 상서로운 吉兆로 여기게 된 다. 김상헌의 다음시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老人星>	<노인성>
離極靈星在	남극에 신령스러운 별이 있으니
孤南號舊仍	남쪽에 홀로 있어 예부터 명성있었네
.....	.....
王道點亨運	王道에서는 국운형통을 점치고
人家賀壽徵	民家は 장수의 조짐으로 축하하는데
衡山與漢拏	형산과 한라에서만 볼 수 있나니
此外見無會	이 곳외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다네

그렇기 때문에 조관빈도 임금의 통치가 다시 펼쳐져 國勢가 안정되어, 벼슬에 물러나 시골에서 태평을 노래하면, 어찌 오늘 이 별을 본 것이 다른 날의 밝은 효험이 아니겠는가<sup>37)</sup>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耽羅賓興에 출제된 당시의 정치적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老人星은 長壽와 國泰民安을 상징하는 意想을 형성하게 된다.

#### IV. 山水敍景과 한라산境界

境界는 意境을 말한다. 의경은 작자의 주관정의와 객관물경이 상호융합되어 형성된 예술경계를 말하는 것이다<sup>38)</sup>. 따라서 한라산경계란 한라

36) 조관빈, 앞의 책, “星辰之麗於天者 靡不與人事有應.....而惟南極之一大星 非中國之衡山 我東之漢拏 則人不得見 盖此所謂老人星 而司人壽命者也 ..... 春秋分乍現.....余之謫大靜也 ..... 居數月 值春分 ..... 有武人吳世賢者 能指之也 ..... 自古耽羅多百歲老人 素稱壽鄉 此尤可驗矣.”

37) 조관빈, 앞의 책, “王綱復振 國勢再安 退而歌太平於畎畝 則安知今日之見此星 不爲他日之明驗耶.”

산 산수유기에 나타난 한라산의 敍景과 유람자의 감정이 융합되어 형상화된 한라산 山水美의 예술경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라산의 서경은 객관물경이며, 유람자의 감정은 주관정의이기 때문이다.

주관정의는 個人에서 民族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민족에 따라 그 경계의 내용은 달라진다. 동시에 시대에 따라서도 주관정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계 또한 相異한 것이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볼 때, 주관정의의 범위도 일정할 수 있으며, 민족적 공통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주관정의의 보편성이라 할 것이니, 한라산을 유람하는 사람마다 산수서경에서 느끼는 주관정의가 다를지라도, 시대별 공통성과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共通性和 普遍性を 通時的으로 고찰하면 傳統性を 발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 한라산 산수서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山水文學에서 산수감상의 태도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첫째 산수를 바라보며 감상하는 것, 둘째 산수를 직접 찾아가서 그 아름다움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감상하는 것, 셋째 현실생활을 벗어나 그 산수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라산 산수유기는 둘째 번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작가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제주도에 到來하였기 때문이다. 관리로 임지에 부임하거나 유배객으로 제주도에 머물게 된 경우이다. 짧은 기간 제주도에 머물렀으므로 隱居나 隱遁의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점이 한라산 산수유기의 기반이며, 주관정의의 보편적 관점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라산 산수유기의 산수서경은 登山과 下山 그리고 絶頂에서의 서경묘사로 구분할 수 있다. 김치는 백록담에 오르면서 산수서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행동을 거쳐 10여 리를 가니 칠성대에 닿았다. 칠성대로부터 동으로 또 5리 정도 가서, 위로 쳐다보니 석벽이 깎아지른 듯 서있는데, 하늘을 버티고

38) 원행패, 칠인공역, 『중국시가예술연구』, 아세사문화사, 1990, 47쪽.

있는 기둥 같았다. 곧 상봉이라 했다. 이에 말을 버리고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밀고 끌면서 올라갔다. 위태로운 꼭대기는 구름에 닿았고 사람자취는 통하지 않았으며 온 산이 모두 향나무였다.<sup>39)</sup>

윗글은 수행동에서 상봉에 이르기까지 산수의 험난함에 대한 묘사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시선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위로 쳐다보니’와 ‘위태로운 꼭대기’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래에서 위로 높은 산을 감상하고 서경을 묘사하는 기법을 高遠이라 한다. 高遠은 대개 한 방향을 향하니, 김치의 시선은 위쪽 ‘석벽’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서경을 ‘깎아지른 듯’이나 ‘위태로운 꼭대기는 구름에 닿았고’라고 하였다. 한라산 實景에 대한 寫實的묘사이다. 어떤 상상이나 비유에 의한 표현이 아니다. 視覺에 의해 지각되는 한라산 산수의 직설적 표현으로 ‘寫境’이다.

산수화의 공간구성법으로 三遠法이 있으니, 遠近을 통하여 산수를 형상화하는 사실주의의 전통적 표현 형식이며 산수를 조망하는 방법이다. 宋나라의 郭熙는 산에는 三遠이 있는데, 산 아래에서 산마루를 쳐다보는 것을 高遠이라하고, 산 앞에서 산 뒤쪽을 들여다보는 것을 深遠,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平遠이라 한다<sup>40)</sup> 라고 하였다.

이 중 深遠은 골짜기 안을 들여다보며, 산수를 眺望하는 경우가 많다. 한라산 산수유기에서 深遠山水는 드물다. 그러나 무의식중에 골짜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눈을 돌려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 글에서 深遠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골짜기는 십여 리였고 풀로 덮인 오솔길이 계곡을 따라 있었다. 시내의 좌우는 고목이 골짜기에 걸쳐 있으며 곳곳의 단풍이 감상할 만 하였다. 시내의

39) 김치, 앞의 책, “由修行 行十餘里 抵七星臺 自臺而東 又過五里許 仰見石壁削立 撐柱半空者 卽所謂上峯也 於是 捨馬携筇 蹣跚推挽而上 危登緣雲 人跡不通 滿山皆香木.”

40) 부포석, 이형숙 역, 『중국의 인물화와 산수화』, 대원사, 1988, 89쪽.

양쪽 언덕은 높이가 열 길 혹은 대여섯 길 정도이니, 절벽이 빙 돌아가며 서 있었다. 낭떠러지는 무지개문과 같은데, 그 가운데는 굴과 같았다. 시냇물은 땅에 스며들며 흐르거나 솟구치며 흐른다. 시내 중간에는 돌이 이리저리 섞여 있으니, 검은 箭筈 같기도 하고, 엷드린 호랑이 같기도 하며, 누운 코끼리 같기도 하고, 잠자는 양 같기도 하며, 웅크린 개 같기도 하고, 말구유 같기도 하며, 수레바퀴 같고, 솟돌 같고, 깎은 것 같고, 달리는 것 같고, 넘어진 것도 같으니 생긴 모양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다. 모두가 잿빛이었다.<sup>41)</sup>

윗글은 김상헌이 1601년 9월 24일 새벽에 일어나 한라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본 계곡의 서경을 묘사한 것이다. “골짜기는.....돌이 이리저리 섞여 있으니”는 서경묘사가 寫境이요, 객관적 實景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亂石에 대한 묘사는 비유이다. 그 이유는 김상헌의 말대로 ‘생긴 모양을 뭐라고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곡의 서경은 매우 험하고 위태로우며, 단풍나무와 절벽 그리고 시냇물과 亂石이 어울려, 험준하고 기이한 산수미를 형성하고 있다. 감상자의 시선이 골짜기 안을 들여다보며, 산수경물에 대한 묘사가 치밀하다. 深遠이다. 山水畵에 있어 계곡에 대한 묘사는 발전된 畵法이다. 그로인한 산수이해와 감상이 깊어지고, 심미적 관점이 다양해졌으며 치밀해졌다.

김상헌은 深遠에 의해 계곡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한라산에 대한 이해와 심미안이 세밀해지고 상승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 한라산 山水敍景은 백록담 정상에서 조망하는 平遠산수이다. 김상헌은 정상에 올라 한라산 산수서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꼭대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북쪽은, 무등, 월출, 천관, 달마 등 여러 산

41) 김상헌, 앞의 책, “洞壑幾十餘里 草徑沿溪 溪之左右 老木架壑 處處霜葉可玩 溪之兩岸 高或十丈 或五六丈 絕壁屏立 陡斷處如虹門 其中成窟 溪水 或洑流 或沸流 溪中 亂石錯置 如鍊籠 如伏虎 如臥象 如眠羊 如蹲犬 如馬槽 如車輪 呂巖 如斲 如走 如躡 不可形狀 而皆成灰色.”

이 희미하게 출몰하는 듯하니, 있는 듯 없는 듯하였다. 광아도와 추자도는 점점이 사마귀 같으며, 아래로 제주성곽을 보니 아득하여 개미허리 같고, 두 縣邑은 너무 작아 분별할 수 없었다. 동서남 삼면에 한 조각의 섬도 없으니, 단지 하늘과 바다가 서로 에워싸서, 망망하여 끝이 없었다.<sup>42)</sup>

윗글에서 감상자의 시선은 산꼭대기에서 바다로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사방으로 조망하고 있다. 시야의 범위가 매우 넓고 광활하다. 동시에 가슴이 쾌활하고 한없이 열리는 듯, 시원함을 넘어 통쾌함을 느낀다. 그리고 한라산 위에서 대자연의 웅장함과 거대함을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생각한다.

이원조는 정상에 올라 산수를 굽어보니 한라산이, 유연자득하여 만물의 겉으로 솟아나 세속을 벗어나 허공에 걸리었으니, 누가 하늘이고 누가 인간임을 알지 못하겠다. 증점의 浴沂之日이 이런 기상이 있었으리라. 만약 공자를 따라 태산에 오르게 하였다면, 그 저작에 또 반드시 성인의 마음에 해당함이 있었으리라.<sup>43)</sup>라고 하였다.

최익현은 『맹자』를 인용하여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렵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다. 성현의 역량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원조가 말한 曾點의 浴沂之日과 공자의 山水之樂은, 유학자 산수관의 표상인데, 그것은 仁者樂山 智者樂水로 요약된다. 학문을 통한 인격함양을 강조한 것이다.

최익현이 말한 ‘觀於海者難爲水’는 정조17년 癸丑(1793) 겨울, 어사 沈樂洙를 제주로 보내어 과거를 시행하였는데, 그 때 論의 제목으로 출제되었다. 이 말 또한 성인의 학문이 높고 큼을 비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42) 김상헌, 앞의 책, “峯頭周覽四表 北望無等月出天冠達磨諸山 依稀出沒 於有無中 廣鵝楸子等島 點點如黑子 下視濟州城郭 杳然如蟬蛭 兩縣邑居微微 不可分辨 東西南三面 無一片島嶼 但見天海相圍 茫茫無際”

43) 이원조, 앞의 책, “悠然自得 高出於萬物之表 掃埃壒而揭寥廓 未知孰爲天 而孰爲人 想曾點浴沂之日 有此氣像 若使從遊於夫子登泰之日 其所撰又有以當聖心也.”

이원조와 최익현에게 한라산은, 성인의 학문경지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한라산 敍景이란 객관물경이 유학자의 주관정의와 융합되어, 학문적 사유의 대상으로 깊이 인식되었으니, 主客觀의 상호교응에 의해 새로운 이념적 가치를 표상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라산 山水遊記에 나타난 한라산境界라고 할 것이니, 학문의 높은 경지나 道를 상징하는 哲理的 세계를 表象한다. 그 결과 원시종교적 산천숭배사상에서 유래한 傳來的인 한라산境界가, 성리학적 사유의 대상과 우주관에 입각한 理念美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 V. 결 론

山水文學은 자연을 소재로 삼아 산수애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山水美를 형상화한 詩歌와 文學작품을 의미하며, 江湖歌道類는 물론 성리학적 이념을 자연미로 형상화한 작품까지 포함한다. 하위 장르로 山水詩, 山水小品, 山水遊記가 있다. 山水遊記는 山水詩와 함께 산수문학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산문작품으로 遊覽記的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한라산 산수유기는 당연히 산수문학장르에 속하지만, 연구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산수문학적 연구라 하였다. 이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林悌(1549-1597)의 「南溟小乘」(1578)은 임제의 12代孫 林鍾弼이 1958년에 간행한 石印本 附錄에 『花史』와 함께 첨부되어 있다. 임제는 선조10년(1577년) 11월3일 출발, 11월 9일 제주도에 도착, 선조11년(1577년) 2월 10일 濟州牧을 출발하여 한라산 山行을 마치고, 2월 그믐날 추자도에 도착하여 귀향하였다. 최초 제주를 유람한 개인유람기이다. 金尙憲(1570-1652)의 「南槎錄」은 선조 35년(1602) 辛丑 8월 10일부터 이듬해 2월 까지 약 6개월 동안, 어사로 제주에서 수행한 임무와 見聞을 기록한 것이다. 이중 한라산 등정 부분이 산수유기에 속하니, 관리의 한라산 유람기 중 대표작이다.

둘째, 金緻(1577-1625)의 『遊漢拏山記』(1609)는 李元鎮의 『耽羅志』에 실려 있는데, 이후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도 실렸다. 김치는 1609년 4월 8일 한라산을 유람했다. 趙觀彬(1691-1757)의 『유한라산기』는 『悔軒集』 권15, 記에 실려 있으며, 「遊南溟記」 「見老人星記」와 함께 제주 유배 時에 지었다. 李源祚(1782-1871)의 「유한라산기」는 『탐라록』 上에 실려 있는데, 1841년 秋分 다음날 한라산 등정을 출발하였다. 최익현(1833-1906)의 「유한라산기」는 형식적 구성면에서, 조선조 유학자의 전형적 산수유기라 하겠다. 이들의 산수유기는 장르의식이 명확하다.

셋째, 한라산의 名所舊蹟은 靈室 五百將軍, 白鹿潭, 尊者庵이 대표적이다. 또 특이한 식물이나 무생물을 포함한 여러 자연물과 자연현상도 포함되니, 苦竹과 瀛州實, 말(馬), 白鹿, 바위, 나무, 바람, 구름, 토양, 老人星 그리고 5월의 눈(雪)과 기후 등이다. 따라서 한라산 명소구적은 반드시 人文歷史 유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이 한라산 山水遊記에 나타난 명소구적의 특징이다.

넷째, 존자암은 山勢가 험준하고 기암괴석과 森林에 둘러싸여, 超世俗의이며 原初的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 주변의 영실기암을 김상헌은 千佛峯이라 하고, 임제는 오백장군이라 명명하였다. 이것은 영실기암의 ‘형식미’에 주목한 것으로 불교적 신앙이나 민간설화와 거리가 멀다. 즉 영실기암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천불봉’이나 ‘오백장군’에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존자암 영실기암의 意想은 한라산의 原初的 敍景美를 표상한다.

다섯째, 백록담은 神仙과 白鹿의 설화를 통해 신성성과 초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신선사상과 결부된 산천숭배사상과 함께 고대신앙의 원시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白鹿潭은 原初的 純粹性으로의 回歸를 상징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意象을 표상한다. 老人星은 한라산에서 관찰이 가능한 별(星)로 상서로운 吉兆를 상징한다. 곧 長壽와 國泰民安을 상징하는 意想을 형성하였다.

여섯째, 한라산경계는 敍景이란 객관물경과 유람자의 감정이 융합된 한라산 山水美의 예술경계를 의미한다. 산수유기에 나타난 한라산의 산

수서경은 實景에 대한 寫實的 묘사로 ‘寫境’이다. 물론 高遠, 深遠, 平遠이 있으나, 백록담 정상에서의 平遠山水가 한라산의 광활한 시야와 賞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모두 유학적 산수관을 견지하였는데, 이원조와 최익현은 한라산 등정을 聖人의 학문적 경지에 비유하여, 哲理的 세계를 表象하게 되었다. 따라서 傳來的인 한라산境界가, 성리학적 사유의 대상과 우주관에 입각한 理念美로 전환되었다.

### <참고문헌>

- 金尙憲, 『淸陰集』  
 李元鎮, 『耽羅誌』,  
 李源祚, 『耽羅誌草本』  
 林悌, 『林白湖集』  
 趙觀彬, 『悔軒集』,  
 崔益鉉, 『勉庵集』  
 제주도, 『濟州史資料叢書( I )』, 1998.  
 이은상, 『탐라기행 한라산』,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4.  
 손오규, 「퇴계의 산수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원행패, 七人 공역, 『중국시가예술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부포석, 이형숙 역, 『중국의 인물화와 산수화』, 대원사, 1988.  
 少尾郊一, 윤수영 역, 『중국문학속의 자연관』, 강원대학교출판부, 1988.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유기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고운정,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연구」, 제주대 대학원, 2013.  
 한국고전번역원, <http://itkc.or.kr>



## Abstract

### *A Study on Sansuyugi of Halla Mountain in Sansu Literature / Sohn, O-Gyu*

Sansu literature consists of Sansusi, Sansusopoom and Sansuyugi.

First, Lim Je's 「Nammoungsoseung」 is the first personal travel essay to Jeju ever written. Kim Sang-Heon's 「Namsarok」 represents all the Halla Mountain travel essays written as a government official.

Second, according to Kimchie's 『Yuhanlasanki』, he traveled to Halla Mountain on April 8th, 1609. Jo Gwan-bin's 『Yuhanlasanki』 was written in Jeju along with 『Yunammyungki』 and 『Gyunnoinsungki』. Lee Won-Jo departed for the summit of Halla Mountain the day after autumnal equinox of 1841. Choi Ik-Hyun's 『Yuhanlasanki』 demonstrated typical Sansuyugi of Joseon Dynasty scholars. Their Sansuyugi displays clear sense of the genre.

Third, Halla Mountain's recognized locations and historical sites are Youngsil Obaekjanggun, Baengnokdam and Jonjaam. In addition, unique plants, various natural matters encompassing inanimated objects and natural phenomena are included. Jonjaam symbolizes the philosophy beyond secular world the and instinctive form of scenery of Halla Mountain. Yeongsilgiam is named after Cheonbulbong, Obaekjanggun remarked on Sansu's beauty of form.

Fourth, through the mystical spirit and Baengnok(White deer) tale, Baengnokdam exemplifies a return to instinctive desire. Canopus embodies longevity, the nation and the peace of people. The aesthetics of Halla Mountain portrays Confucius landscape, and it defines the learning of Saints. Therefore, the status of traditional aesthetics of Halla Mountain revolved around as Confucius ideology of beauty.

Key words: Sansuyugi, Halla Mountain, Image, Yeongsilgiam, Baengnokdam, Status, Canopus.